

## 6.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불패 신화의 종말

까밀로 에찬디아 까스띠야

---

라울 레예스(Raúl Reyes)의 사망과 잉그리드 베탄쿠르(Ingrid Betancourt)의 구출은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장 투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최근 20여 년 동안 전략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게릴라 조직은 근거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투쟁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전투에서 정부군과 직접적인 대치를 피하고 기습과 돌발적인 행동을 통한 게릴라 전투로 방향 선회를 한 것이다. 안드레스 빠스뜨라나(Andrés Pastrana) 정부 때 시작되어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 정권이 등장하면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

### 서 론

군비와 전투력의 증강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에 성공한 콜롬비아 게릴라가 최근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장 세력은 전투에서 주도권을 상실했고 정부군의 치안 능력은 회복되었다. 뒤집기 힘들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1998년 안드레스 빠스뜨라나 정부가 시작한 군대의 현대화 작업이 알바로 우리베 정권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게릴라 집단은 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손에 넣은 핵심 지역뿐

만 아니라 전략적 후방에서도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게릴라들은 관할 구역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에서 (작전 경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 퇴각을 위한 근거지 같은) 전략적 대상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무장 조직이 가급적 정부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서 정부군의 전투력을 소모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한 것은 최근에 그들이 입은 피해가 컸다는 반증이다. 라울 레예스의 사망과 콜롬비아 정부군의 잉그리드 베탕쿠르 구출작전은 게릴라들에게 가해진 가장 최근의 타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콜롬비아 무장 투쟁의 역사

무장 투쟁에 개입했던 당사자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끊임없는 변화와 단절은 무장 투쟁의 역사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sup>1)</sup> 1980년대에 발생한 가장 중요한 단절 중 하나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이보다 20년 전에 출현했던 '민족해방군'(ELN)이 뚜렷한 전략적 목표 -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는 것, 혁명 투쟁을 위한 전략적 지역에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 지방 정부에 혁명 세력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 - 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sup>2)</sup>

---

1) 무장 투쟁의 전략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던 콜롬비아 무장 투쟁의 맥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Eric Lair, "Transformaciones y fluidez de la guerra en Colombia: un enfoque militar", en Gonzalo Sánchez y Eric Lair (eds.), *Violencias y estrategias colectivas en la región andina*, IFEA/Iepri/Grupo Editorial Norma, Bogotá, 2004.

2) 게릴라들의 거점 확대는 전략적 대상의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략적 대상에는 광물 자원, 불법 작물 재배, 게릴라가 처음 활동했던 지역보다 더 도시화된 지역에서의 활

장기적 관점은 투쟁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1980년대 말엽에는 혁명 집단의 점거 지역이 확장되고 화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도시 지역에서의 활동은 전략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군은 게릴라들의 새로운 계획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까맣게 모른 채 무장 세력의 공세에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 당시 가장 두드러진 무장 세력은 민족해방군이었고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그 다음이었다. 비르힐리오 바르코(Virgilio Barco) 정부(1986-1990)가 무장 조직에게 평화 협상을 제시했던 1988년에 민족해방군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주도권 행사는 최정점에 도달했고, 그들의 활동은 정부군의 활동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세스르 가비리아(César Gaviria) 정권(1990-1994)에서 게릴라 단체와 정부군의 대립이 격화된 것은 '시몬볼리바르 게릴라단체협의회'(CG-SB)에 모였던 게릴라들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을 공격한 정부군의 작전에 반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무장 투쟁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1992년과 1994년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해 게릴라 집단이 무력시위를 통해 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다. 1990년에 메따(Meta) 주(州)의 우리베 시에서 정부군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지휘부를 공격한 것을 계기로 게릴라 조직은 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 기간에 '시몬볼리바르 게릴라단체협의회'와 평화적 대화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가비리아 정부가 '총력전'(guerra integral)을 선언함으

---

발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Camilo Echandía Castilla, *Dos décadas de escalamiento del conflicto armado colombiano*, Facultad de Finanzas, Gobierno y Relaciones Internacionales, Universidad Externado de Colombia, Bogotá, 2006, cap. 1.

로써 게릴라 조직과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가열되었다. 그 결과, 정부군의 공세가 게릴라 활동보다 더 우세해졌다. 1993년에 정부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무장 집단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퇴각을 선택했다.

에르네스토 삼삐르(Ernesto Samper)의 집권 시기(1994-1998)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경험을 통해 축적한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게릴라 전투에서 기동전으로 전환했다.<sup>3)</sup> 삼삐르 정권 4년 동안 무장 집단은 전략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납치를 이용했다. 납치의 주된 대상은 경찰관들이었지만, 정치지도자들이 납치되기도 했고, 경제적 목적을 위한 납치도 자행되었다. 1997년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시의회와 시장 선거의 후보자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납치를 이용하기도 했다.

안드레스 빠스뜨라나가 집권했던 시기(1998-2002)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콜롬비아 동남부에 위치한 '국제적 긴장 완화 지역'(Zona de Distensión)에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큰 전과를 올렸다. 1998년 11월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바우빠스(Vaupés) 주의 수도인 미뚜(Mitú)를 기습해 정부군 16명을 사살하고 61명을 인질로 잡는 전과를 올리면서 미뚜를 장악했다. 미뚜를 장악한 것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게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미뚜의 통제권을 다시 상실했다. 콜롬비아

3) 1996년 8월 30일에 뿌뚜마요(Putumayo) 주의 '라스델리시아'(Las Delicias) 병영을 공격했고, 9월 7일에는 구아비아레(Guaviare) 주의 '라까르빠'(La Carpa) 병영을 공격했다. 나리뇨(Nariño) 주의 빠따스꼬이(Patascoy) 병영이 습격당한 것은 1997년 12월 21일이었다. 1998년에는 3월부터 정부군 제3기동연대(까게따[Caquetá] 주 엘비야르[El Villar]), 경찰서(구아비아레 주 미라플로레스[Miraflores]), 그리고 정부군의 병영들(우라바[Urabá] 주 빠바란도[Pavarandó], 메따[Meta] 주 우리베[Uribe] 시)이 차례로 습격당했다.

무장혁명군의 패배는 군대의 현대화 사업과 미국의 협조를 얻어 추진된 '콜롬비아 플랜'(Plan Colombia)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빠스뜨라나 정권 초기부터 정부군은 제도적이고 이론적이며 기술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군의 전문화, 즉 실전에 맞는 군사 이론 적용, 효율적인 작전 수립과 수행, 주도적이고 공격적이며 기동성 있는 작전 개념의 적용, 정보와 기술 그리고 명령과 통제, 커뮤니케이션 계통의 향상을 추진했다. 군의 개혁은 정부군에게 게릴라 단체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왔고, 그 결과 게릴라 전투에서 기동전으로 전환을 시도했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의도를 무산시켰고, 국제적 긴장 완화 지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게릴라 단체의 시도도 저지했다.

군사 작전의 증가와 공군력의 도움으로 1999년부터 정부군은 주도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정부군이 주도권을 잡은 전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02년부터는 증가세는 더 뚜렷해졌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정부군 초소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지역에 정부의 개입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마을을 공격한 것도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게릴라들의 공격 지점을 살펴보면 콜롬비아 동남부의 주(州)들과 서남부의 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이동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자신들의 활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인정을 얻어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실상의 권력을 잡게 되면 정부와의 협상에서 정당성을 정치적 대표성을 얻

으려고 했다. 또한 투옥된 게릴라들과 교환하려는 목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증가했다.

정부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1980년대부터 마약 거래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민병대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민병대는 코카 재배 지역을 통제하고 생산된 마약을 북쪽 해안으로 운송하는 통로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학살을 저질렀고 2001년에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민병대들은 콜롬비아 남동부에 위치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후방 지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정부군뿐만 아니라 전략 지역을 장악하려는 민병대와의 분쟁 과정에서 게릴라들은 민병대가 저지르는 테러와 유사한 작전을 중단했다. 빈번하게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납치가 게릴라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게릴라들은 납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사전 정보를 통해 선별적으로 납치했지만,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지는 납치를 게릴라들이 자신들의 실추된 영향력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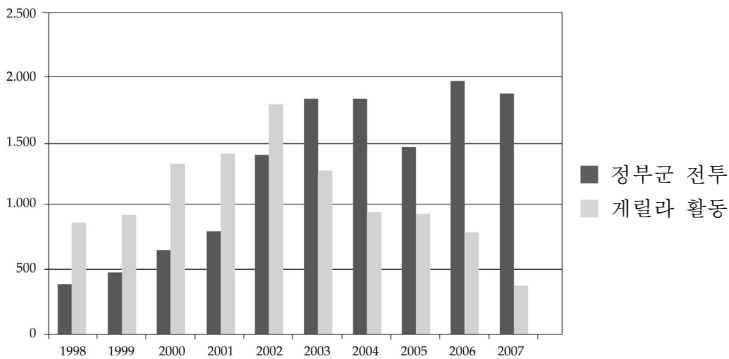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의 평화 협상이 결렬된 2002년 2월부터 게릴라들은 시장과 시의회를 협박해 사임하게 함으로써 지방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02년에 콜롬비아의 1,098개 시(市) 중에서 158개 시가 게릴라들의 반복된 공격에 치안이 공백 상태가 되었고, 협박을 받은 131명의 시장이 떠났다.

알바로 Uribe 대통령의 첫 번째 집권 시기(2002-2006)에 게릴라들은 같은 방식의 작전을 밀어붙였고, 이에 따라 정부군의 공세도 더

강화되었다. 알바로 Uribe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콜롬비아 무장 투쟁의 양상은 크게 변화되었다. 전투 능력이 향상된 정부군은 게릴라들의 무장 행동과 근거지 확대를 현저하게 저하시켰고 납치도 줄어들었다.<sup>4)</sup>

[도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3년부터 주도권의 양상이 뒤바뀌었다. 처음으로 정부군이 선제적으로 수행한 전투 횟수가 게릴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한 전투 횟수를 능가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힘의 균형은 정부쪽으로 기울었다.

[도표 1] 정부군의 전투와 게릴라 활동과의 관계, 1998-2007



출처: Datos del Observatorio del Programa Presidencial de Derechos Humanos y Derechos Internacional Humanitario

4) 게릴라 활동의 본래의 의미를 추락시키는 확실한 상징적인 사태인 조직적 납치 행위는 지방 거점에서 사용되는 압력 수단이었다. 따라서 납치 행위가 강화되는 것은 거점 확대 이전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납치 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게릴라 무장 조직이 위축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Daniel Pécaut, *Las FARC, une guérilla sans fins?*, Editions Lignes Repères, Paris, 2008.

## 정부군의 공세와 게릴라 활동의 변화

우리배 정권이 휴전 없이 무장 집단에 공세를 취하게 되면서 게릴라들은 본래적인 게릴라 전투 방식<sup>5)</sup>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지방의 거점 지역에서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피난처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적 열세를 느낀 게릴라 조직들은 작전 반경을 전략적 지점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주로 이동로에 폭탄을 매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군경(軍警)은 게릴라 집단과의 군사적 충돌보다도 매설된 폭탄에 의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도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게릴라 활동은 소단위로 움직이며 기습하고 도주하는 전술적 특징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술은 작전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 외에도, 고정된 전선과는 달리 적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점도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장 조직은 인명 손실과 작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군경은 여러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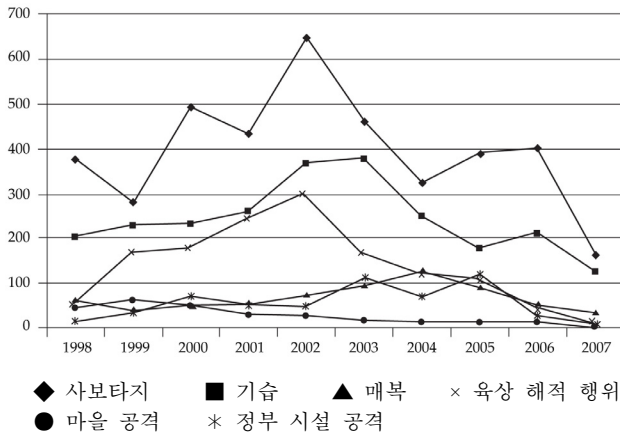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대한 정부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게릴라들은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도표 2]에

5) 게릴라 전술은 고전적인 군사 작전 교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병력과 물자의 열세 때문에 상대방에게 드러난 지역에서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릴라들은 지속적인 도발, 기습, 소단위 매복 등을 통해 상대방을 전열을 흐트리고 소모시킴으로써 적을 괴롭히는 전술을 택하기 때문이다(다음은 볼 것. Peter Waldmann, "Guerra civil: aproximación a un concepto difícil de fórmula", en *Guerra civil, terrorismo y anomía social*, Konrad Adenauer Stiftung/Grupo Editorial Norma, Bogotá, 2007, cap. 1). 그러나 전문가들은 게릴라 전술은 과도기적인 전술임을 지적한다. 정치적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최종적인 군사적 행위는 정규군 간의 직접적인 전투를 통해 가능하다. 이것이 현 상황에서 콜롬비아 게릴라들이 처해 있는 딜레마이다.



서 볼 수 있듯이, 게릴라들의 활동 중에서 국가의 인프라 구조에 대한 사보타지 행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군경에 대한 공격은 이보다는 완만하게 감소했다.

[도표 2] 게릴라 무장 활동의 추이, 1998-2007



흥미로운 것은 게릴라들이 사보타지를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타지 활동을 벌이는 것은 공세가 강화되는 시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손에 넣는 경우에도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006년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정부가 남부 지역의 통제를 회복할 목적으로 추진한 ‘콜롬비아 플랜’(Plan Colombia)과 그 뒤를 이은 ‘애국(愛國) 플랜’(Plan Patriota)에 포함된 여러 지역에서 ‘무장 파업’을 실행했다. "무장 파업"이 실행된 곳은 초코(Chocó), 우일라(Huila), 뿌따마요(Putamayo), 나리뇨(Nariño), 아라우까(Arauca) 주였다. 또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코르도바(Córdoba)와 북부 산탄데르(Santander) 주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을 감행했고, 나리뇨, 뿌따마요, 산탄데르, 북부 산탄데르, 세사르(Cesar) 주에서는 군부대와 경찰에게 매복 공격을 시도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이러한 공격을 감행한 목적은 남동부 지역의 전략적 후방에 대한 정부군의 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무장 조직의 작전에 의해 전장(戰場)이 결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무장 충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정부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군경과 게릴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군경이 2004년부터 콜롬비아의 남동부 지역에서 전개된 '애국 플랜'을 통해서 영토를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에,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근거지 방어를 포기하고 까우까(Cauca)나 나리뇨 주같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전략지역 통제에 주력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대략 28~31개 주에서 정부군이 주도권을 잡은 전투는 게릴라가 주도권을 잡은 전투보다 많았다.<sup>6)</sup> 그러나 까우까, 나리뇨, 바우빠스 주에서는 정부군의 작전 능력이 게릴라 활동보다 열세에 있다.

전투력과 관계된 이러한 변화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의해 납치 억류되어 있던 잉그리드 베탕쿠르, 세 명의 미국인 사업가, 11명의 경찰을 구출한 작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게릴라 조직의 침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번 작전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역사에서 게릴라들에게 가해진 가장 결정적인 타격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장이 아

6) 안띠오키아(Antioquia), 메따, 톨리마(Tolima), 까께따, 까사나레(Casanare), 세사르, 구아히라(Guajira), 마그달레나(Magdalena)에서는 정부군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Datos del Observatorio del Programa Presidencial de Derechos Humanos y Derechos Internacional Humanitario.*

니다. 왜냐하면 빼코가 지적했듯이<sup>7)</sup>, 신비스러움에 싸인 채 대단한 단결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던 무장 조직의 허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8년 초반에 발생한 라울 레예스의 사망도 무장 조직에 대한 군경의 공격에서 단 한 번도 지휘부의 핵심 인원을 잃지 않았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게는 또 다른 타격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레예스의 주둔지에 대한 정부군의 작전이, 국경 지역을 통해 퇴각함으로써 전략적 후방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전술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는 점이다.

민족해방군의 경우에는 그들이 주로 이용했던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사보타지의 경우에도 무장 투쟁이 줄어들었다. 정부군의 작전이 민족해방군의 약화에 중요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민병대의 활동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민병대들이 게릴라들의 규합을 위해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침투하여 게릴라 조직의 상당 부분에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민족해방군은 산악 지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를 계기로 민족해방군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동거하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행동하기도 하는데, 특히 (볼리바르 주의 남부) 산루카스(San Lucas) 산악 지역, (세사르 주) 빼리하(Perijá) 산악 지역, (카리브 해안) 산따마르타(Santa Marta)의 시에라네바다 지역이 그런 곳이다. 다른 한편, 민족해방군에 속한 일부 집단이 바예(Valle), 까우까, 초꼬 주에서 이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나 마약거래를 돕고 있는 무장 집단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의 지휘부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

7) D. Pécaut, ob. cit.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민족해방군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두 조직이 대립하는 일이 벌어진다. 경제적 이권과 베네수엘라로 통하는 이동로의 통제를 놓고 아라우카 주에서 발생한 두 조직 사이의 유혈 충돌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리노 주에서도 마약 밀매에 협조하는 조직과 연관이 있는 민족해방군이 전략적 이동로, 코카 재배와 마약 제조를 위한 시설의 통제권을 놓고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충돌했다.<sup>8)</sup> 무장 조직이 마약 거래 조직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게도 무관한 일이 아님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볼리바르 주의 남부, 우라바, 꼬르도바, 바호 까우까, 세사르 주의 남부, 메따, 비차다(Vichada) 주 등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장악하고 있는 최소 6개 주에서 코카 재배, 마약 생산 시설 보호, 마약 수출을 위한 루트의 이용에 대해서 마약 거래 조직과 협정을 맺었다.

요약하자면, 정부군의 작전 수행 횟수의 증가와 효율성 증가, 게릴라 조직의 점거지 상실과 무장 투쟁의 주도권 상실, 전략적 후방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게릴라 조직의 퇴각 전략이 콜롬비아 무장 투쟁의 상황이며,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 결 론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콜롬비아 정부군과 무장 조직 간의 충

8) 다음을 참조 할 것. International Crisis Group, "Colombia: ¿Se está avanzando con el ELN?", *Boletín informativo sobre América Latina* N° 16, Bogotá-Bruselas, 11/10/2007, disponible en [www.crisisgroup.org/home/index.cfm?id=5115&l=4](http://www.crisisgroup.org/home/index.cfm?id=5115&l=4).

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정부군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게릴라들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정부군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면서 80년대부터 게릴라들이 실행하려고 했던 목표들 -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점거하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으로 주요한 중심부로 활동을 확대하는 것 - 이 방해를 받고 있다.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농촌 지역에서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게릴라 활동으로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되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 대한 정부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게릴라 조직은 50%의 전력을 손실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으로 퇴각했으며, 무장활동과 전투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이 때문에 작전 수행을 위한 자금 마련에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무장 조직이 어느 때보다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민족해방군도 정부군의 공세로 인한 타격, 끊임없이 발생하는 조직원의 이탈,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충돌로 조직이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른 무장 조직과 체결하고 있는 동맹관계로는 조직의 약화를 상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게릴라 조직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가지고 있던 불패의 신화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고, 조직원들

의 신념과 전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대원을 모집하는 데도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은중 번역)